

보도시점 2025. 9. 8.(월) 오후 (별도 문자 공지 예정) 배포 2025. 9. 8.(월) 1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 지능 진짜 성장의 기폭제” ‘국가 인공 지능(AI) 컴퓨팅 센터’ 구축

- “인공 지능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인공 지능(AI) 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 발표
- '28년까지 그래픽 처리 장치(GPU) 1.5만장 이상 확보, 국가 인공 지능(AI) 컴퓨팅 센터 민간 참여자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8일(월) 개최된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오후 2시, 서울스퀘어 17층)에서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인공 지능(AI) 컴퓨팅 기반 시설(인프라)은 인공 지능 모형(AI 모델) 개발, 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는 인공 지능 생태계 혁신성장의 필수 기반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다. 해외 주요국은 국제 인공 지능(글로벌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인공 지능(AI) 컴퓨팅 기반(인프라) 확충에 천문학적 투자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인공 지능 시대의 새로운 사회간접 자본인 인공 지능 컴퓨팅 기반을 확충하여 ‘인공 지능(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국가 경제의 체질을 인공 지능 중심으로 재편하여 “진짜 성장”을 견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공 지능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5만장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산·학·연에 시급한 그래픽 처리 장치(GPU)를 제공하고자 정부 그래픽 처리 장치(GPU) 확보 사업으로 '25~'26 2.8만장, 슈퍼컴 6호기 구축으로 ~'26 상반기 0.9만장을 확보한다. 또한, 민·관 합작 ‘국가 인공 지능(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여 ~'28 1.5만장 이상을 추가 확보하고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국가 인공 지능(AI) 컴퓨팅 센터 사업 공모(1차: 1.23~5.30, 2차: 6.2~6.13.)를 추진하였으나 유찰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하여 민간에서 우려하는 ▲지분 구조(공공지분 51%로 인한 민간 자율성 저하), ▲매수청구권(공공출자금+수익 보장으로 인한 투자 위험 확대), ▲국산 인공 지능 반도체 도입 의무('30년까지 50% 도입 부담) 등 공모 요건을 조정하고 국가 인공 지능(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국가 AI컴퓨팅 센터는 민·관 합작 출자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을 설립하여 구축한다. 이는, 정부 마중물 투자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국내 중소·신생기업(스타트업), 대학, 연구소 등이 필요로 하는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국산 인공 지능(AI) 반도체 활성화, 세계적 기업 협력 등을 통해 국내 인공 지능 생태계 고도화 및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 인공 지능(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주요 내용】

추진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주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 (지분구조) ^{기초}공공 51% : 민간 49 % ⇨ ^{초청}공공 30% 미만 : 민간 70% 초과 ※ (매수청구권) 공공 출자금에 대한 매수청구권은 삭제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 출자 및 정책금융 대출 등 총 2조 원 이상 ▶ 최종 출자금은 지분 구조를 고려하여 민간에서 제안 ※ 정부(800억원, ~'30년), 산업은행·기업은행(대응출자) 예정으로 정부 정책 및 재정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향후 ^{가칭}첨단전략산업기금 출범 시 활용 검토 예정
공모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기업 또는 단일 연합체(컨소시엄)(대표법인 신용등급 A- 이상) ※ 데이터센터 또는 인공 지능(AI) 컴퓨팅 서비스 구축·운영 관련 기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복수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통신사 연합체(컨소시엄) 구성 시 평가 우대
입지·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입지는 비수도권에 구축 ※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 활용 우대 ▶ '28년까지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1.5만장 이상 확보, '30년까지 지속 확충 ※ '27년 이내 서비스를 조기 개시할 경우 평가시 우대
서비스·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서비스 유형(그래픽 처리 장치 자원 제공, 상면 임대 등)과 요금은 민간 주도로 운영 ▶ 다만, 산학연의 인공 지능 연구개발, 서비스 등 지원 방안(요금할인 등) 제시 필요
인공 지능 생태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 인공 지능(AI) 반도체 단계적 도입·실증 등 활성화 지원 ※ 국산 인공 지능 반도체 도입 의무 대신 민간에서 추진 가능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관리 ※ 정부는 국산 인공 지능 반도체 초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성능 고도화, 수요 창출 등 추진 ▶ 해외 수요 확보, 기술 협력·실증 등 국내 인공 지능(AI) 컴퓨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국제[화]를 위해 글로벌 기업 협력 추진

또한, 정부는 국가 인공 지능(AI) 컴퓨팅 센터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마련하였다. 우선, 정부 재정사업 추진 시 필요한 그래픽 처리 장치(GPU) 자원은 국가 인공 지능(AI) 컴퓨팅 센터 이용을 우선 검토하는 등 초기 수요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비율을 최대 25%까지 확대*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속 처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인공 지능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추가하여 통합 투자세액공제 비율 확대 : (기존) 1~10% → (확대) 15~25%

이번 공모는 9월 8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진행되며, 사업참여계획서는 10월 20일, 21일 양일간 접수*한다. 이후 1단계 기술·정책 평가, 2단계 금융심사를 거쳐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참여자를 선정하고 '26년 상반기까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 온라인, 우편, 방문(10~17시) 접수 예정(온라인 접수 시에도 인쇄물 별도 송부 필요)

사업 공고문과 세부 공모요건이 담긴 공모지침서* 등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다. 아울러 9월 11일에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방향, 주요 공모요건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공모지침서는 9월 10일 이전에 게시될 예정

** (일시/장소) '25. 9. 11.(목) 14시~16시 / 섬유센터 별관 3층 텍스파홀(서울 삼성)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5만장을 조속히 확보하여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로 활용하고자 한다.” 라면서, “향후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가 인공지능 모형·서비스,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인공지능 생태계 성장의 이음터(플랫폼)이자 인공지능 고속도로의 핵심 거점으로서,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하였다.

◆ 동 보도자료는 **인공지능 3대강국 도약** 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일련의 정책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기업, 연구자 등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컴퓨팅인프라팀	책임자	팀 장	김광년 (044-202-6380)
		담당자	사무관	최동혁 (044-202-6381)
		담당자	사무관	허예라 (044-202-6382)
		담당자	연구원	강성임 (044-202-6052)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정보통신예산과	책임자	과 장	김건민 (044-215-5531)
		담당자	사무관	이한결 (044-215-8593)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박재훈 (02-2100-2860)
		담당자	사무관	김기태 (02-2100-2861)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